GIST 김호범 교수, '젊은 과학자상' 수상

전자기학·광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대회 PIERS 2025에서

-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, 페로브스카이트 결함 제어 기술로 고효율·고안정성 광전자소자 상용화 가능성 크게 높여

▲ GIST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신소재공학과 **김호범 교수가 지난 5월 7일(수)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'PIERS 2025(Photonics and Electromagnetics Research Symposium)'에서 젊은 '과학자상(Young Scientist Award)'을 수상**했다고 밝혔다.

PIERS 젊은 과학자상(Young Scientist Award, YSA)은 **전자기학 및 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만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**되는 상으로,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. **수상자는 향후 해당 분야의 리더급 핵심 연구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 인정**받는다.

김호범 교수는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**페로브스카이트(perovskite)의 결함 제어 기술을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**하여, **고효율·고안정성 광전자소자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인 공로**를 인정받았다. 이 기술은 **태양전지, 발광소자(LED), 광검출기 등 다양한 광전자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성**이 높다.

한편 PIERS(Photonics and Electromagnetics Research Symposium)는 **전자기학 이론 및 응용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**로, 1989년부터 전자기학 아카데미(The Electromagnetics Academy, TEA)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.

▲ PIERS 2025 YSA(Young Scientist Award) 상패

PIERS는 **미국, 유럽, 아시아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며, 광학· 광자공학·전자기 이론·메타물질·나노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**하는 장이다. 이 학회는 연구자 간 지식 교류와 글로벌 협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관련 분야의 석학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학술행사로 평가받고 있다.